

구리시

GU RI

〈연혁〉

- 근대 이전 : 양주시 연혁 참조
- 1914년 : 양주군에 구리면 신설(구지면과 망우리면 등 병합)
- 1973년 구리읍으로 승격
- 1980년 : 남양주군 구리읍으로 행정구역 변경(남양주군 신설)
- 1986년 1월 1일 구리시로 승격(남양주군에서 분리)

〈현황〉

- 면 적 : 33.3km²(경기도의 0.31%)
- 인 구 : 73,642세대 197,132명(2009.12.31 기준)
- 지정구호(슬로건) : 고구려의 기상 세계 속의 구리시
- 상징물 : 캐릭터 - 아리미(친환경도시 표현), 시화(市花) - 철쭉, 시조(市鳥) - 비둘기, 시목(市木) - 은행나무



건원릉(태조릉)은 왜 항상 풀이 우거져 있나?

아버지(이성계)와 아들(이방원)의 갈등



태조고황제 건원릉 비

이성계는 1335년 10월 11일 함경도 화령(和寧)에서 이자춘(李子春)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본관은 전주이고, 자는 중결(仲潔), 호는 송헌(松軒)이며, 태조 즉위 후에는 이름을 이단(李旦), 자를 군진(君晉)으로 고쳤다.

어려서부터 총명할 뿐 아니라 궁술에 능하였으며, 1356년(공민왕 5)에 고려가 쌍성총관부를 탈환할 때 공을 세워 관직

에 등용되었다. 그 후 홍건적과 여진족의 침입을 물리쳤으며, 해안 일대에 출몰한 왜구도 토벌하였다. 1388년 우군도통사가 되어 요동을 정벌하러 가던 도중 위화도(威化島)에서 회군하여 최영 등을 제거하고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였다.

정도전·조준 등의 지지를 얻어 토지개혁을 단행함으로써 신흥사대부 세력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1392년에는 정몽주마저 제거하고 왕위에 오른 뒤 이듬해 나라 이름을 조선(朝鮮)이라 고쳤다.

태조는 첫째 부인 신의왕후와 사이에 방우-방과-방의-방간-방원-방연과, 두 번째 부인인 신덕왕후와 사이에 방번-방석을 두었다. 그는 즉위 한 달 후 신의왕후 소생들을 배제한 채 11살 된 방석을 세자에 책봉하였는데, 이는 왕자들 간에 왕위 계승권을 둘러싸고 두 차례 살육전이 벌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그 중심에 있던 인물이 바로 태조의 다섯째 아들 이방원이다. 그는 조선을 건국하는 데 자신의 공이 형제들 중 가장 컸음에도 공신에 오르지 못하고 세자 자리도 방석에게 빼앗기게 되자 불만이 높아갔다. 그리하여 1398년 8월 사병을 동원하여 반대파인 정도전·남은·심효생과 방번·방석 형제를 살해하는 왕자의 난을 일으켰다. 태조는 자식들의 피 비린내 나는 싸움에 상심한 나머지 왕위를 둘째 아들 방과(정종)에게 넘겨주고(큰아들 방우는 세상을 떠난 상태) 상왕으로 물러났다. 2년 뒤 방원과 방간 간에 벌어진 2차 왕자의 난을 계기로 세자가 된 이방원은 정종의 양위를 받아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그가 곧 태종이다. 이때 태조는 고향인 함흥으로 돌아가버렸다. 태종이 아버지에게 문안을 드리려고 여러 차례 차사를 보냈지만 화가 난 태조가 차사를 모두 죽이는 바람에 돌아오지 못했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즉 '무슨 일로 갔다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뜻의 함흥차사(咸興差使)라는 말이 여기에서 생겨났다고 한다.

동구릉 가장 안쪽에 있는 건원릉의 사연

동구릉(구리시 인창동 62번지)의 맨 꼭대기에 위치한 건원릉(健元陵)은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능이다. 능의 이름이 된 건원(健元)은 나라와 도움을 세웠다는 의미로 붙여졌으며, 조선왕릉 중에서 유일하



건원릉

게 두 글자로 된 능 이름이다. 하지만 태조가 자신이 죽은 뒤 묻히고자 했던 곳은 건원릉 자리가 아니라 둘째 부인(신덕왕후)의 무덤이 있는 정릉(貞陵; 서울 중구 정동)이었다.

그런데 이성계가 세상을 떠났을 때는 태종이 다스리던 시대였다. 태종은 신덕왕후를 몹시 미워하였다. 왕비로서 제사도 폐하고 계모에게 행하는 제사를 지내도록 할 정도였다. 신덕왕후가 종묘에

배향되고 왕비로서 제사를 받게 된 것은 이로부터 200년이 지난 현종대에 이르러서이다. 게다가 태조가 승하하자 태종은 곧바로 정릉을 도성 밖(서울 도봉구 정릉동)으로 옮겨버렸다. 또한 그는 죽어서라도 신덕왕후와 나란히 묻히고 싶어했던 아버지의 소망도 들어주지 않았다. 현재 태조는 건원릉(구리시)에, 첫째 부인 신의왕후는 제릉(개성시)에, 둘째 부인 신덕왕후는 정릉(서울시)에 각각 묻혀있다.

한편 태조는 자신의 고향인 함흥에 묻어달라는 유언도 남겼다. 그러나 태종은 개국의 시조를 왕궁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묻을 수 없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유언을 무시하였다. 대신 함흥에서 역새를 옮겨와 아버지의 봉분을 덮었다. 건원릉이 다른 왕릉과 달리 잔디가 아닌 역새풀로 덮여있게 된 까닭이다.

동구릉 관리사무소는 매년 한 차례, 즉 한식날(4월 5일경)에 건원릉의 역새를 제거하고 깔끔하게 정리한다. 역새의 뿌리는 잘못 건드리면 죽기 때문에 건원릉의 봉분은 더욱 조심스럽게 다룬다고 한다. 따라서 한식 며칠 뒤에 건원릉을 찾으면 여느 능과 별 차이 없어 보이지만, 그 외 계절의 건원릉은 '벌초도 하지 않은 채' 무성하게 자란 역새로 뒤덮여 있는 모습을 하게 된다.